

[사회]

“사찰 국립공원서 빼달라”

장성 백양사 해제 촉구 이어 조계종 종단도 주장

국립공원 내 사찰 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둘러싼 논란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 7일 장성 백양사가 내장산 국립공원 해제를 촉구한 데 이어 12일 불교 조계종이 전국 국립공원 지정 구역에서 사찰소유지를 빼달라고 정부에 요구한 것.

조계종은 이날 총무원에서 개최한 교구본사 주지회의에서 “그동안 1억 1천만여 명이 다녀간 사찰 소유지를 공원 구역으로 무상 제공해 국립공원제도 정착과 운영에 막대한 기여를 해왔다”면서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이 이러한 사실을 평가하지 않고 최근 공원입장료 폐지와 관련해 국립공원 구역의 공공유지인 것처럼 홍보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결의문을 통해 “백양사가 최근 국립공원 지정 해제를 요구한 것을 지지하며, 이를 계기로 전통사찰 경내지, 문화재보호구역, 전통사찰보존구역, 역사문화보존구역 등을 국립공원 구역에서 빼달라”면서 “사찰 경내지가 국립공원 부지에 무상 편입되어 수행환경 침해와 자율적인 재산관리 행사를 크게 제약받았으므로 임대료, 사용료 등으로 보상해달라”고 요구했다.

나아가 “국가 문화재의 70%가 불

교문화재인데도 문화재 보수 예산의 16.4%만 지원받고 있는 현실을 우려한다”면서 증액을 요구했다.

조계종은 올해 들어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후 사찰문화재 관람료 징수로 등산객 등과 마찰을 빚어왔다. 조계종은 논란이 되고 있는 문화재 관람료 매표소에 대해서는 “사찰 소유 토지, 문화재보호구역, 전통사찰의 역사문화보존구역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백양사는 지난 7일 항적전에

서 열린 총립 임회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국립공원 지정으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로 사유재산 침해는 물론 종교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립공원으로 편입된 사찰소유지의 해제를 결의했다”고 9일 밝혔다.

백양사 측은 결의사항을 통해 “불교계의 동의없이 내장산 내에 있는 백양사 사찰 토지와 자연문화유산에 대한 일방적인 국립공원 지정은 당연히 해제돼야 한다”며 “사찰 지역의 보호를 위해 ‘백양산 역사자연문화유산지구’로 명칭을 변경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우주인 후보 러 출국 한국 최초 우주인 후보로 뽑힌 광주 출신 이소연(왼쪽)씨와 고신씨가 우주비행 적합 여부를 재검증하는 의학검사를 받기 위해 12일 인천공항에서 러시아로 출국하면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고교 과학수업 주 3→4시간 확대

교육부 7차교육과정 발표·역사·논술교육 강화

중·고등학교 사회 교과에서 역사 과목이 독립되고 고등학교 1학년의 과학과 역사과목 주당 수업시간이 1시간씩 늘어나는 등 과학, 역사 교육이 한층 강화된다.

논술비중 확대 추세에 맞춰 국어 교과 등에 논술 관련 내용이 대폭 반영되고 고등학교 2, 3학년의 선택과목군이 현행 5개에서 7개로 세분화되며 일선 학교에서 통합논술 등 필요한 선택과목을 독자적으로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7차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정안을 12일 삼청동 교원소청심사

위원회 대강당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등학교 1학년의 과학 수업시간이 주당 3시간에서 4시간으로 1시간 늘어난다.

또 수학과 과학, 기술, 가정이 현재 과학·기술군으로 묶여 있는 것을 수·과학·기술·가정군으로 분리해 수학과 과학 과목의 이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역사교육 강화를 위해서 중·고교 사회과목 안에 포함돼 있는 국사와 세계사를 역사로 통합해 별도 과목으로 독립시키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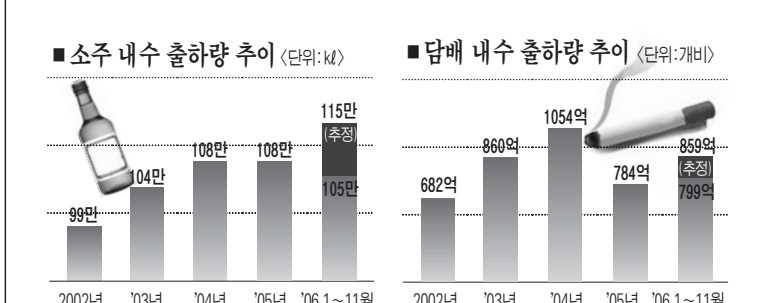
선택과목으로는 ‘동아시아사’가 신설되고 고등학교 1학년의 역사과목

수업시간이 주당 2시간에서 3시간으로 역시 1시간 늘어난다.

정규교육 과정에서 체계적인 논술 교육이 실시되도록 초·중학교 국어 교과와 논술관련 내용이 강화되고 고등학교 국어과 선택과목인 ‘작문’에 논술관련 내용이 단원 수준으로 반영된다.

고교 2, 3학년에 해당되는 선택교육과정의 경우 선택의 폭을 넓히고 운영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일반선택과 심화선택의 구분을 폐지했다.

또 현재 인문·사회군(국어 외 도덕 사회), 과학·기술군(수학 과학 기술 가정), 예·체능군(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군(외국어), 교양군(한문 교양 교양) 등 5개로 나뉘어 있는 과목군을 7개로 조정했다. /연합뉴스



소주·담배로 달랠나?

작년 소주판매량 사상최대·담배 10% 증가

‘살림살이가 팍팍해 서민들이 쌓이는 시름을 소주와 담배로 달랠까?’

경기가 어려울수록 잘 팔려 대표적인 ‘불황상품’으로 꼽히는 소주 판매량이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월별별종으로 잠시 주춤하는 듯하던 담배 판매량도 지난해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선 극심한 경기침체로 고통에 시달려온 서민들에게 ‘한국 정치 스트레스’까지 더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소주, 담배에 의지해 시름을 덜고자 했던 게 아닌가 관측하고 있다.

12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중 소주 내수 출하량은 105만8천409㎏에 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2005년 같은 기간 99만3천504㎏에 비해 6.5%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소주 내수 출하량 통계는 이달 말쯤 나올 예정이다지만 2005년 12월(9만5천

308㎏)과 같은 양을 소비한 것으로 가장할 경우 2006년 연간 소주 내수 출하량은 115만3천717㎏에 이르러 사상 최대치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보인다.

이들 시장에서 주로 판매되는 소주 용량인 360㎖들이로 치면 지난해 한 해 동안 32억476만여병이 소비된 셈이다. 2005년 기준 국내 20세 이상 성인이 3천495만여명인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 성인 1인당 4월에 1병꼴로 한 해 동안 평균 92병의 소주를 마신 것이다.

한동안 주춤하는 듯하던 담배 소비량도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1~11월 중 담배 내수 출하량은 799억400만개에 비해 2005년 같은 기간 724억6천400만개에 비해 10.3%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중 담배 내수 출하량이 2005년 12월(60억2천700만개)과 같다고 가장할 경우 지난해 연간 담배 소비량은 859억3천100만개에 달한다. /이종태기자 jitee@

학자금 대출 받은 부모 4명중 1명꼴 신용불량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 정부보조금 성격으로 전환된 2005년 2학기 이후 등 록금과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린 학생 4명 중 1명꼴로 부모의 금융신용이 ‘불량’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12월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2학기 32만2천897명의 학생이 학자금과 생활비 등을 신청해 약 80%인 25만2천439명이 대출 혜택을 받았다.

대출학생 가족의 경제능력을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연평균 소득이 1천

981만6천900원 수준인 3분위 이하가 54.2%를 차지해 학자금지원정책이 양극화 해소 및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출학생 부모의 신용은 은행이나 신용카드사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거나 카드대금을 연체한 이른바 ‘신용유지자’가 26.6%였다.

아직 모두 신용이 불량한 경우는 8.8%였고 부모 중 한 명이 문제가 있는 학생은 19.5%였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광고점수안내

상속한정승인공고

상속한정승인공고

산행안내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한길 컴퓨터 정비전산학원